

자산 1조... 경제사업 활성화로 혁신 선도

농협, 새 희망을 연다

<2> 서광주농협

광주의 정중앙에 위치한 서광주농협(조합장 문병우)은 도심형 농협의 살길을 제시하는 모범 단안이라는 평이다. 1972년 창립한 서광주농협은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속에 도시화와 함께 성장하며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값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농협의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농협으로 도약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해 시민을 상대로한 신용 사업만으로도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지만 위기의 농업을 일으켜 세우고, 생산물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문병우 조합장이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즉 농업인의 실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협동조합 정신에 충실한 경영노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새로운 시각으로 착수한 밀 등 맥류 재배 지원사업은 이러한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다. 조합원의 고령화 등 농협이 품고 있는 문제를 과감히 극복한 이 시책은 점차 빛을 받고 있다. 매년 밀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수확작업비 등 지원금이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농촌 일손부족과 생산비 증가, 기상이변 등 악조건에도 맥류 재배 농가 보호에 앞장서면서 쌀 대체 작목육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광주농협은 '내고장 농산물을 산지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운동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자는 취지 아래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잡곡가공 소포장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소포장 사업을 시작해 2년 연속 3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매출 5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광주농협은 도심형 농협답게 경제사업면에서



서광주농협 직원들이 농산물 판매 촉진과 상호금융사업 성과를 통해 농가와 지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혁신농협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농가·소비자 모두 만족

'도심형 농협'의 모범

시청내 로컬푸드 직매장 준비

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조합원 1700여명의 작은 조합 같지만 자산규모만 1조원이 넘는 우량조합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출자금에 1500여만원에 이른다. 또 준조합원만 12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농업종사자인 조합원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서광주농협은 지난해 개장한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으로 151억을 벌어들인 등 당기순이익 31억7000여만원을 달성했으며 상호금융총여수신고도 전년 1조5000억원에 비해 800억원이 늘어나 1조6000억원대를 넘겼다.

조합원 복지사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영농자재 지원과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지원사업에 근간을 두

면서 의료복지 사업과 농업인안전보험가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조합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농회와 부녀회 등 조합원 가입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로당에 난방비, 복지용품 등을 후원하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펼치고 있다.

서광주농협은 지난해 하나로마트 동림점을 연 데 이어 올해는 광주시청 청사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청사 내 오픈할 경우 서광주농협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가의 판로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득성 서광주농협 경제상무는 "도심형 농협의 전형인 서광주농협은 비전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한 소비자농협으로서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를 위해 경제사업 분야에 더욱 비중을 두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드 직매장을 열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초심을 잃지 않은 겸허한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문 조합장은 "타성은 쇠에 갇힌 녹과 같다"라는 격언을 머릿속에 새겨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누구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무심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심경영 실천... 소비자에 사랑받는 농협될 것"

문병우 조합장

"경제사업 활성화를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역민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조합원과 자녀 등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서광주농협 조합장 재선에 성공한 문병우(49) 조합장은 "이제는 우리 농협을 얼마나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이고, 감당해야 할 임무"라며

"위기의 농촌을 살릴 해법을 찾아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10여년 동안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로 비전 없이 보낸 세월이 안타깝다는 문 조합장은 지난 3년여 동안 다져온 사업을 기반 삼아 도심형 농협으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동림점 개장으로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광주시청 청사 내에 로컬푸

금호석화, 그룹 계열 분리 소송서 최종 패소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자신의 회사를 친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서 4년여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0년 구조조정 이후 사실상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법적으로는 계속 형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속하게 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1년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

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주회사적인 금호산업 등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 박삼구 회장이 주도하는 그룹 경영권을 재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구 회장 측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박삼구 회장이 이 회사들의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기에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권을 인정해줬다. 서울고법은 "박삼구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 등의 일상적 경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JB금융그룹은 3일 전주 금융지주 본사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의미를 담은 통합 CI(기업이미지) 선포식을 했다. 김한 회장이 그룹 기를 흔들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JB금융그룹, 통합 새 CI 선포식

JB금융그룹은 지난 3일 전주 금융지주 본사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의미를 담은 통합 CI(기업이미지) 선포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김한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와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 CI는 전북은행·광주은행·JB우리캐피탈·JB자산운용 등 4개 자회사와 지주의 간판·직원 명함·배지 등에 사용된다. J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에 내포된 믿음, 고백

중심 사상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은 새 CI는 사각형 형태로 푸른색 바탕에 흰색이 사용됐으며 비상(飛上), 믿음(信), 사람(人), 공간(空間)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지주 측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포식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소매금융 중심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농어촌공, 농산어촌개발 연찬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지난 3일 지역본부에서 공무원, 학계, 지역개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날 연찬회에서는 박종철 목포대 교수와 김신환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부장, 정진환 전남도 농어촌개발 담당이 발표자로 나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전남지역 농산어촌개발사업 73권역에 대한 분석과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로또복권						(제64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13	17	23	28	36	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31,451,204		8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9,835,407		49
3	5개 숫자일치			1,299,593		1,879
4	4개 숫자일치			50,000		87,582
5	3개 숫자일치			5,000		1,401,744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본점

남구

구

500m

大山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초 혼

추천 회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상선,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